



火災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지난해 10월 뜻하지 않은 화재를 당했으나 잘 훈련된 증업원들의 신속하고 민첩한 진화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보험금을 받아 1개월만에 거뜬히 재기한 (주) 한양제분소를 찾았다.

취재/李斗洪 (홍보부 과장)

단일업종으로서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주) 한양제분소는 공장전체가 인화물질인 종이로 가득 차 있다.

종이로 시작하여 종이로 끝나는 작업상의 특성으로 제분소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손꼽힌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되어 공장전체가 온통 불바다가 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 회사개요

마포구 성산동 51-2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주) 한양제분소(사장崔尙坡)는 5백64평의 대지에 연건평은 1천여 평으로 제분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이다.

1954년 설립된 이래 30여년을 오직 제분업에만 전념해온 극히 보기드문 기업중의 하나다.

이처럼 단일업종에만 전념해온 한양제분소는 국내 제분업계의 정상을 지켜오면서 출판문화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해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때는 서대문의 제1공장과 성산동에 제2공장, 만리동에 제3공장을 가동하면서 국내 대부분의 인쇄물을 독점해 오다시피 하여 왔으나 지금은 성산동 본공장에서 업무의 자동화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해 오고 있다.

■ 화재상황

84년 10월16일 새벽 4시 25분경 본공장 생산2부 1실내에 설치된 자동제본기의 무선철기 부분에서 작업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자동제본기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경비중이던 홍정표씨가 처음 발견하고 야간근무중인 종업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작업중이던 30여명의 종업원들이 동원되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공장내에 비치된 24개의 소화기를 동원하여 발화된지 약 30여분만에 완전히 화재를 진압하였다.

신속한 진화로 다행히 건물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자동제본기는 심한 손상을 입고 사용불능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을 돌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순히 화재위험이 많을 것이라는 점과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느낌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같은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한양제본소 경리부 洪在豪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제본소는 사장님이하 전 종업원들의 방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화재위험이 많은 만큼 화재예방 대책과 소방훈련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비상시를 대비한 방화대책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마포구 방화시범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야간 방화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야간방화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야간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로 방화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재사고를 신속히 진화할 수 있었던 것도 야간방화조 편성 운영과 야간순찰 강화에 의한 결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는 월1회 주로 민방위의 날에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퇴시에 사장님이 직접 방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양제본소는 이같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의 사전대비가 화재예방 대책과 소방훈련, 각종 소화대책이라면 사후대비책으로는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한양제본소의 보험실태를 알아보면 75년 12월10일에

특수건물로서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10여년을 계속해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의 보험계약은 84.1.6계약 85.1.6자 만기계약으로 보험금액은 건물 4억8백61만원, 기계 3억8천4백만원으로 총 7억9천2백61만원의 보험금액에 1년보험료 3백16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이처럼 한양제본소는 사전, 사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수건물화재보험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은 어떻게 하고 洪 차장에게 다시 물어 보았다.

『사전대비가 최선의 방법이겠음니다만 화재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후대비책으로 보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의 화재사고를 당하고 보니 보험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경제생활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라는 사실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특수건물 화재보험을 막연하게 법으로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다는 생각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생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금 수령과 복구할때 까지의 이야기가 많을것 같아 다시 질문해 보았다.

『화재가 발생한 후 즉시 화재보험협회에 알리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까지 약1개월정도 시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지급된 보험금이나 지급기일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당한 자동제본기가 우리공장의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어 생산에 다소 손해는 보았지만 신속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진화와 복구가 가능했던 것은 한양제본소의 사장님이하 전 종업원들의 철저한 방화의식과 함께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것 같다.

위기를 잘 극복한 한양제본소는 앞으로 한정된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까지 진출하여 국제적인 제본소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 한다.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무수한 각종 재난으로 부터 귀중한 생명과 땀흘려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기업주와 종업원의 철저한 방화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된다.

한양제본소는 이와같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재피해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